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윤석민 복귀… KIA 4강 '날갯짓'

김상현 투입이어 출동대기 명령 8월 대공세 합류

두차례 불펜피칭 합격점 … 빠르면 내주 마운드에

KIA 타이거즈가 '홈런왕' 김상현 투입에 이어 '에이스' 윤석민에 출동대기를 명했다. 빈타에 허덕이던 공격진에 '김상현 효과'를 보탠 데 이어, 투수진에 '윤석민 날개'를 더해 8월 대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겠다는 포석이다.

타선 부진 여파로 마운드까지 붕괴 되면서 6위로 전반기를 마감했던 KIA가 불붙은 타격을 앞세워 4강 싸움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다.

타선의 중심에는 김상현이 있다. 김상현은 올 시즌 무릎과 발목 부상이 겹치면서 사실상 전반기 휴업상태였다. 지난달 27일 사직에서 열린 롯데전을 통해 그라운드로 돌아온 김상현은 복귀무대에서 시원한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홈런왕의 부활을 알렸다.

김상현은 복귀 후 6경기에서 25타수 8안타(2홈런) 0.320의 타율로 6타점을 기록하며 KIA 타선에 불을 붙였다. 김상현의 가세는 타선의 동반 상승까지 이끌어냈다.

지난해 홈런왕을 놓고 팀내 경쟁을 벌이던 최희섭과 김상현이 타선에 포진하면서 상대 마운드가 느끼는 중압감은 배가 됐다. 톱타자 이용규까지 불방망이를 선보이면서 타선은 한층 견고해졌다.

최희섭은 "상현이가 뒤에 없다고 하면 투수들이 어렵게 승부를 하고 나 자신도 편한 스윙을 하지 못할 것이다"며 "김상현이 돌아오면서 부담감을 떨치고 편하게 스윙을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중심타선의 한방으로 타자들의 부담감이 덜해졌고, 타력은 더해졌다. 김상현 효과로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는 KIA는 윤석민 효과까지 준비하고 있다.

오른쪽 손가락 골절로 재활을 해왔던 윤석민이 4일 불펜피칭을 했다.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 불펜피칭에 나선 윤석민은 55개의 공을 던지며 상태를 점검했다. 이날 극심한 더위에 일사병 증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피칭은 별무리 없이 소화했다.

지난달 19일 깁스를 푼 후 근력운동에 집중했던 윤석민은 두 차례 불펜피칭을 완료하며 복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민은 "다른 것에 신경 안쓰고 공 던지는 자체에 집중했다"며 "투구감각을 찾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빠른 속도로 재활과 복귀준비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불펜 피칭으로 몸을 푼 윤석민은 주말 광주에서 열리는 삼성과의 2군 경기를 통해 최종테스트를 받은 후 1군에 합류할 예정이다.

윤석민의 등장은 KIA 선수들에게도 관심사다. 4일 LG와의 경기 전 선수단은 '다음 주 윤석민이 복귀한다'며 윤석민의 불펜피칭 결과에 관심을 보였다.

풀타임으로 선발진을 책임져온 양현종에게도 윤석민의 복귀가 반갑다. 양현종은 3일 14승을 거뒀지만 이날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었다. 경기가 끝난 후 양현종은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면서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다. 하지만 석민이 형이 돌아오면 선발진에도 한결 여유가 생기고 부담감도 덜해 질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상현을 앞세워 타력 재점화에 성공한 KIA가 윤석민의 힘으로 마운드에도 날개를 달게 될지 야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랑이 질주 더위가 변수

무등경기장 인조잔디 열기에 헉헉

선수들 보양식 등으로 체력관리

KIA의 거침없는 연승가도에 '더위'가 변수로 떠올랐다.

안방에서 경기가 있는 날 KIA 선수들은 오후 1시가 조금 넘어 운동장에 나와 개별적으로 몸을 푼다. 훈련을 시작하는 때는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오후 2시30분께.

이 때쯤 경기장은 말 그대로 '찜통'이다. 무등경기장 야구장에는 천연잔디가 아니라 인조잔디가 깔려있다. 인조잔디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때문에 선수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훨씬 높다.

게다가 지난주 상대적으로 시원한 사직·문학 두 천연잔디 구장에서 경기를 치르고 돌아온 터라 상대적으로 느끼는 열기도 더 뜨겁다. 살인 더위에 4일 불펜피칭에 나선 윤석민은 현기증까지 호소했다. 독하기로 소문난 이용규도 '덥다'를 연발할 정도다.

더위에 진을 빼고 있는 KIA는 주말에는 군산에서 두산과 주말 3연전을 치른다. 군산월명구장 역시 인조잔디 구장으로 한여름 열기는 무등경기장 못지 않다. 자칫하면 더위가 잘 나가고 있는 KIA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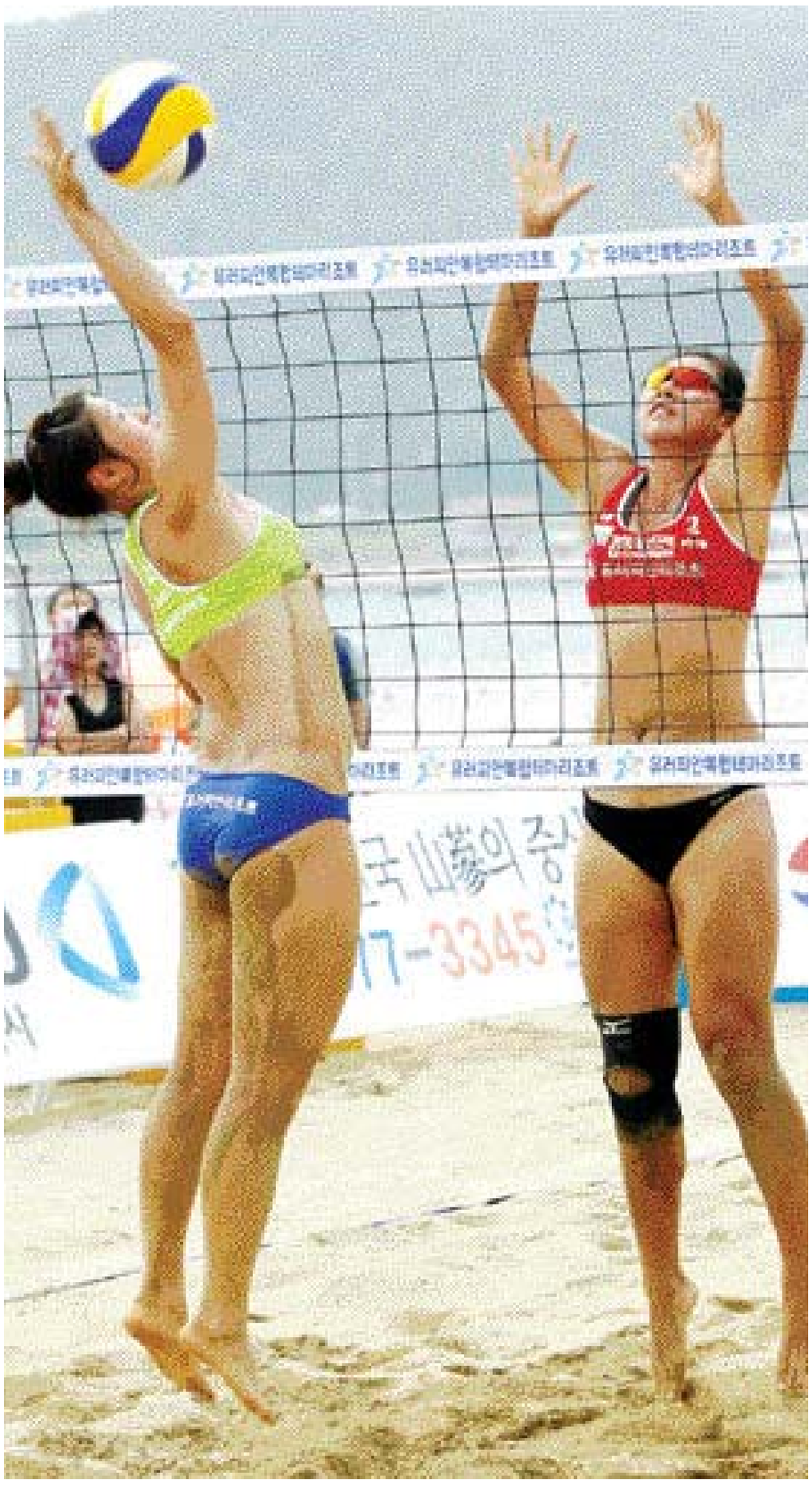
더위극복을 위해 선수들은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다. 노장 이종범은 경기에 앞서 따로 웨이트를 소화하고 있다. 체력적인 준비없이 그라운드에 나서면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없다는 게 이종범의 지론이다.

지난해 장어를 먹고 홈런을 기록하면서 '장어 주장'이라는 별명을 얻은 김상훈은 장어로 몸보신을 하고 있다. 몸관리가 철저하기로 유명한 곽정철은 과일 섭취를 늘려 수분 보충을 하고 있다.

팬들도 힘을 더하고 있다. 이종범은 얼마전 한 남성팬으로부터 말벌술을 선물로 받았다. '체력관리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라'는 정성이다.

나지완 앞으로는 매일 특별한 아이스박스 배달되어오고 있다. 아이스크림과 캔커피가 담긴 박스 안에는 얼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훈련 중간중간 선수들의 더위를 식혀주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미녀의 스파이크 4일 울산시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서 열린 2010 울산 진하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에서 한국의 이진화(왼쪽)가 중국 첸첸을 앞에 두고 스파이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 '아기 호랑이' 야구교실

10~11일 투구·타격 ·수비 강습

화순 금호리조트서 물놀이도

KIA 타이거즈가 구단 어린이 회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야구교실'을 연다.

어린이 야구 교실은 10~1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 실내연습장과 금호리조트 워터파크에서 진행되며 모집인원은 30명, 참가비는 2만원이다.

참가자는 10일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동안 실내연습장인 호승관과 피칭장에서 투구·타격·수비 등 3개조로 나누어 순환 교육을 받는다. 글러브 잡는 법, 공던지는 법과 함께 기본 자세 및 캐치볼 실습 등 투구 교육을 받게 되며 T배팅, 시뮬레이션 배팅 등의 타격 교육도 진행된다. 포구 및 송구 방법, 내야 펑고 등 수비 교육도 마련됐다.

11일에는 화순 금호리조트 워터파크에서 물놀이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참가신청은 구단 홈페이지 (http : //www.tigers.co.kr)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자들에게는 기능성 티셔츠와 구단 모자가 증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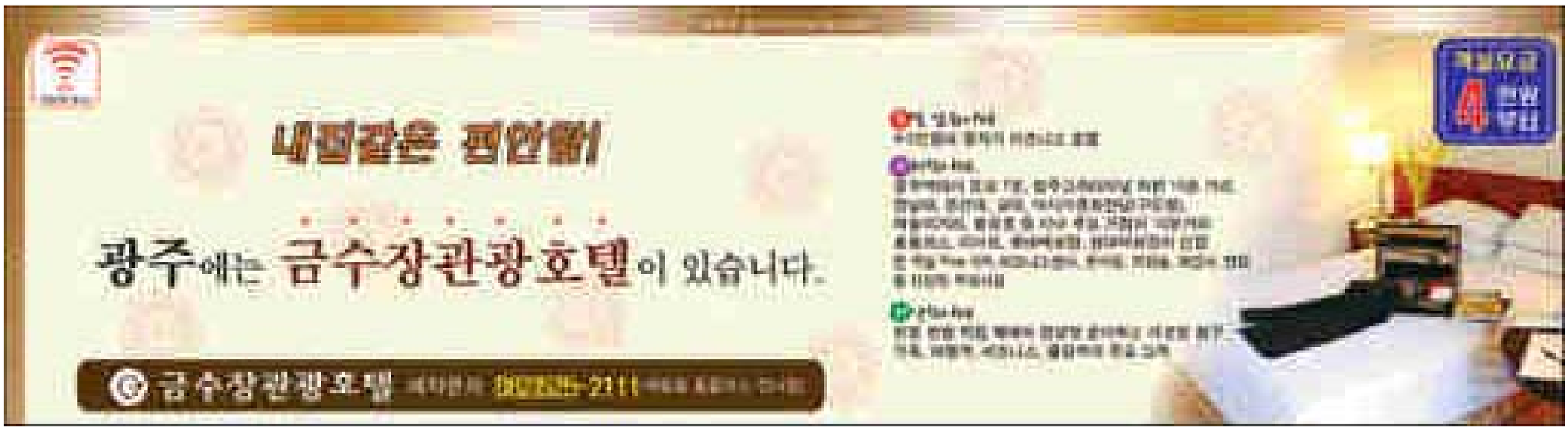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안타에 도루 '원맨쇼'

팀은 보스턴에 1대 3패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두 번이나 2루를 밟았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득점에 이르지는 못했다. 추신수는 4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와 방문경기에 3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 3타수1안타를 때리고 몸 맞는 볼 1개를 얻었다. 타율은 0.292를 유지했다. 0-0이던 1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첫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보스턴 오른손 선발투수 조시 베켓의 초구(시속 153㎞)를 결대로 받아쳐 깨끗한 중전 안타를 터뜨렸다.

0-2로 끌려가다 루 마슨의 홈런으로 1점을 따라붙은 3회 2사 후 추신수는 베켓의 투구에 오른쪽 다리를 맞아 1루를 밟았고 셸리 던컨 타석 때 2루를 재빨리 훔쳤다.

시즌 14번째 도루를 기록했지만 이번에도 득점과 무관했다.

몸 맞는 볼 2개와 위협구가 속출하면서 베켓과 클리블랜드 투수 젠슨 루이스가 각각 퇴장당한 이날 경기에서 클리블랜드는 산발 3안타에 묶여 1-3으로 패했다. /연합뉴스